

# 한국 정치학의 방법론 연구, 1980~2009: 진단과 평가\*

김 용 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정치학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논문과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를 추적·검색해 볼 때, 지난 30년간(1980~2009) 진행된 한국 정치학계의 방법론 연구는 축적 성과에 있어서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영역과 정향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가 축소됨에 따라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me)의 공고화 과정에서 노정되는 전형적 표징인 유리스틱(heuristic)의 폐쇄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리스틱의 폐쇄성은 연구문제와 분석기준의 답습을 초래함으로써 비록 지식의 축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해와 통찰의 범주가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한 과학”의 유리스틱에 대한 맹목적 신조의 형성과 그에 따른 방법론적 시각의 교조화(敎條化)야말로 과학적 진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방법론적 재성찰과 의식적 도전이 요구된다. 즉, “무엇인가 잘못되었다(something has gone wrong)”는 방법론적 인식이 의도적으로 격려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방법론의 신화(Myth of Methodology)를 타파하여 정치적 세계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경로를 개방할 때 이른바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제어: 방법론, 연구프로그램, 연구전통, 유리스틱, 한국정치학

## I. 서론: 방법론적 회의, “필수적 긴장”과 과학적 진보

연구방법론(이하 ‘방법론’)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정돈된 이야기’의 진행을 계도하는 길잡이의 위상으로 위축되어 왔다. 즉, 방법론은 특정한 과학체계 내에서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합의된 지식의 용도와 형태<sup>1)</sup>에 상응하여 구축될 뿐이라는 통념에 따라 그에 관한 논의는 주어진 유리스틱(heuristic)<sup>2)</sup>을 준수하는 기법적 제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과학체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리스틱을 충실히 수용하려는 인지습성(habits of mind), 즉 “견고히 구축된 무의식적 반응”(entrenched responses that ordinarily occur without conscious attention) (Margolis 1993, 7-8)이 요구되고, 이러한 인지습성의 확산이야말로 “강한 과학”<sup>3)</sup>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김용진 2009, 31-37). 바꾸어 말해서 유리스틱에 대한 재성찰, 특히 핵심적 분석기준과 협약에 대한 방법론적 도전의 부재는 곧 과학체계의 안정성과 강고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며, 따라서 자료분석기법에 한정된 방법론적 논의와 그에 따른 “방법론의 이론종속성”(김용진 1993a)은 강한 과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강한 과학은 치밀하게 구성된 과학적·과학외적 패권 네트워크를 통해 진보의 추동력인 “필수적 긴장(essential tension)”(Kuhn 1977)을 제어한다. 즉, 적실성이 입증된 “강력한 문제풀이 기제”(Lakatos 1986, 4)에 대한 회의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기존 연구전통-새로운 시각의 갈등은 유리스틱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핵심세력(core set)”<sup>4)</sup>의 정치적 동원(Brown 1988, 101-106), 곧 과학정치<sup>5)</sup>의 패권적 역동(김용진 2009, 25-87)으로 인해 소멸된다. 그러나 과학의 진보는 “의식적이지 비판적인 오류보정”(conscious, critical error elimination)을 통해 사고의 경직성을 탈피함으로써 진행된다(Popper 1994, 134). 유리스틱에 대한 맹목적 신조를 격파할 때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허용되며, 방법론은 바로 그러한 격파과정에 있어서 전위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필수적 긴장을 유도하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탐색이야말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식생산과정에

1) 예컨대 경험과학의 경우 설명과 예측을 지향한 인과형 진술(causal statement).

2) 특정한 과학체계 내에서 적실성과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분석기준, 협약과 절차. 라카토시(Lakatos 1986, 4-6)를 참고.

3) 공고하게 구축된 연구프로그램과 다수의 지지자와 추종자를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비단 학사회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체계. 김용진(2001a, 99-100) 및 풀러(Fuller 2000, 45)를 참고.

4) 과학체계(과학사회) 내에서 연구문제와 유리스틱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그러한 유리스틱에 기반을 둔 과학행위의 네트워크를 관장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지식생산을 패권적으로 통제하는 소규모의 강력한 지배집단. 브라운 (Brown 1988)를 참고.

5) 과학행위의 정향과 경로를 통제하는 과학적·과학외적 패권의 형성, 배분과 전개과정(김용진 2009, 13).

참신성과 창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 성공적인 과학자는 전통고수자(traditionalist)와 우상파괴자(iconoclast)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낸다 … 성숙한 과학에 있어서 발견과 새로운 이론으로의 전주곡은 무지(無知)가 아니라 기존 지식과 신념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something has gone wrong with existing knowledge)는 인식이다 …(Kuhn 1977, 227, 235)

이 보고서는 우리 정치학방법론 연구의 현황을 진단하여 정치학 전반에 걸친 연구정향의 창조적인 개방, 즉 '과학민주주의'(김웅진 2009)의 확립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1994년 이래 4차(김웅진 1994a, 1997, 2001b, 2007)에 걸쳐 수행된 검색작업의 일환이다. 검색기간은 1980년으로부터 2009년까지 지난 30년간이며, 최초의 보고서(김웅진 1994a)가 작성된 이후 이루어진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의 체계를 유지하되 서론 및 결론을 전면 재작성하고 본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수정·보완하는 구성방식을 채택하였다.

검색대상으로는 『한국정치학회보』(14집~43집 5호)와 『국제정치논총』(20집~49집 6호)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과 국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단행본을 선정하였다. 논의대상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제한한 이유는 이들이 우리 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양대학회인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학술지이며, 모든 정기간행물 목차와 게재논문 요약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 하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발표된 방법론 관련 논문을 빠짐없이 검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색대상 기간을 1980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이미 1970년대 말엽~1980년대 초엽에 걸쳐 이른바 과학적 방법론, 특히 경험과학방법론이 안청시(1977), 이용선(1978), 길승흠(1980), 신명순(1982) 등 선구적 학자들의 연구에 적용되었으나 그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세대 경험과학자인 이남영(1985), 조중빈(1986), 김웅진(1987), 이갑윤(1987) 등의 논문이 발표된 1980년대 중엽 이후이며, 1970년대에는 순수한 방법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연구여건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색방식으로는 ① 연구논문의 경우 대상기간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요약을 출간본과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여 논의대상을 선정하였고, ② 단행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의 검색창을 이용해 추적하였다. 검색과정에서 특히 유의한 점은 우선 ‘방법론’이라는 용어 자체의 광범위한 함의이다. 방법론의 범주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검색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한 논의의 범주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me)<sup>6)</sup> 내에서 지식생산방식을 규정하는 분석기준과 협약(방법론, methodology)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자료획득(관측) 및 처리방식(방법 혹은 기법, methods/techniques), 그리고 방법론의 형성, 확산과 제어에 관한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담론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정치학의 방법론적 현황을 보다 치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단 방법론 자체에 한정된 논문이나 저서뿐만 아니라 정치학의 주요 구성분야, 즉 한국정치·비교정치·국제정치 등 전 영역에 걸쳐 생산된 문헌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리스틱과 실제로 적용된 분석방법을 상세히 추적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에 있어서 대규모 연구인력의 장기간에 걸친 투입이 요구되는 방대한 프로젝트이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우리 정치학계의 과제이다. 본 논문을 통해 시도된 방법론 관련문헌의 검색·평가는 보다 포괄적인 검색작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과 정향의 도출에 목적을 제한하고 있음을 서두에서 밝혀둔다.

## II. 연구성과의 검색과 진단: 축적성·영역·정향<sup>7)</sup>

지난 30년간 진행된 우리 정치학계의 방법론 연구는 범주와 축적성의 측면에서 모두 방법론을 독립된 분야로 간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다. 예컨대 1980년으로부터 2009년까지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은 게재논문 총 2,902편 가운데 단지 26편에 불과하며(점유율 0.9%), 출간된 저서 역시 그 절대 수(16종)에 있어서

6) “부정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인식론적·이론적 중핵(hard core)”과 그를 둘러싼 보조가설의 “방어환(protective belt)”을 근간으로 한 안정적 유리스틱을 갖춘 과학체계. 라카토시(Lakatos 1986, 4) 참조.

7) 이 부분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서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보고와 비교·검토하여 변화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보고서(2007)의 내용을 수정하여 전제하되 새로운 정보를 추가·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표 1〉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 수 및 점유율, 1980~2009

학술지	게재논문 총수	방법론 논문 수 및 점유율
「한국정치학회보」 14집~43집 5호	1,608	17 [1.1%]
「국제정치논총」 20집~49집 6호	1,294	9 [0.7%]
계	2,902	26 [0.9%]

정치이론 및 사상·한국정치·비교정치·국제정치 등 여타 주요 분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연구조사의 기본절차와 자료분석기법의 소개에 편중된 입문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위 〈표 1〉 참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고도로 세련된 방법론적 운용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학자들의 수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정치학 교과과정에 방법론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정치학계에 있어서 방법론은 단지 '적용'되는 도구적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법론적 기준의 타당성과 적실성 자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론의 신화(Myth of Methodology)", 즉 "바른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과학적 진보가 신속히, 그리고 틀림없이 달성되리라는 맹신과 무비판적 의존"(Kaplan 1998, 24-27)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1. 연구논문

### 1) 한국정치학회보

검색기간에 걸쳐 「한국정치학회보」(제14집~제43집 5호)에는 총 1,60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방법론 논문은 17편(점유율 1.1%)에 불과하다(〈표 2〉 참조). 특히 점유율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각기 2.0%, 1.0%, 0.8%편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게재논문 총수가 755편에 달하여 1980년대(236편)에 비해 약 3배로 증대되었으나, 방법론 논문은 단 1편만이 추가되어 점유율이 2.0%로부터 0.8%로 절반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수적 빈곤에 더해 연구자(저자)의 측면에 있어서도 편협성이 노정된다. 즉, 17편 가운데 7편의 논문이 동일 저자(김웅진)에 의해 작성되어 방법론 전문연구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여실히

〈표 2〉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 수 및 점유율: 1980~2009

기간(집:호)	게재논문 총수	방법론 논문 수	방법론 논문의 점유율(%)
1980~1989 (14~23:2)	246	5	2.0%
1990~1999 (24:1~33:4)	607	6	1.0%
2000~2009 (34:1~43:5)	755	6	0.8%
총계	1,608	17	1.1%

보여주고 있다.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정한 방법론의 본질에 관한 과학철학적·인식론적 담론, 방법론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학정치의 역동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논의, 분석 수준의 적용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기법적 제안이 고루 포함되어 영역별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험과학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전제의 무비판적 수용이 초래한 폐해를 지적한 후 정치학 연구의 과학적·사회적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광웅의 논문(1987, 21:2), 통상적인 '실증주의 비판'을 역비판하고 사회과학지식의 생산경로가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정치사회적 폐쇄성을 지적한 논문(김웅진 1990, 24:특별호), 경험과학방법론의 집단사회화와 규범화, 즉 성화(聖化)가 초래하는 지식의 화석화(化石化) 현상을 지적한 논문(김웅진 1993a, 27:2[하]), 과학적 발견의 판정과 정당화 경로에 개입하는 과학패권(scientific hegemony)의 전개과정을 해체한 논문(김웅진 1995, 29:3), 과학적 진보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지식의 축적과정이 표출하는 탈과학적·정치적 성격을 추적한 논문(김웅진 1999, 33:3) 등 다섯 편이 경험과학방법론에 대한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성찰에 해당되며, 정치학의 과학화를 위한 계량통계분석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역설한 이갑윤의 논문(1987, 21:2) 역시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증주의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과 서사적(narrative) 방법의 상호보완성을 '수(數)의 세계'와 '이야기의 세계' 간의 관계를 통해 탐색한 안재홍의 논문(2005, 39:3), 사회과학방법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논쟁의 의미와 전개과정을 다룬 장원석의 논문(1991, 25:1) 또한 방법론 자체에 대한 포괄적 담론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같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 1980~2009

간행년(집:호)	논문 제목	저자	영역*
1986(20:1)	비교분석기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김웅진	B
1987(21:2)	한국정치학에서 「과학적 연구」의 의미: 과학철학에 대한 반성과 제언	김광용	A
1987(21:2)	정치학의 과학화와 통계적 방법	이갑윤	A
1987(21:2)	회귀분석 '신드롬': 한국정치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법적 진단	김웅진	B
1989(23:2)	모형화 작업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론척도: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재성찰	김웅진	B
1990(24:특)	지식생산경로의 폐쇄성: 정치현실과 정치학적 시각	김웅진	A
1991(25:1)	해석학 논쟁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제 문제	장원석	A
1993(27:2[하]) [1993a]**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연구방법론의 성화와 지식의 화석화	김웅진	A
1995(29:3)	과학적 발견의 정치사회적 정당화: 적실성의 족쇄와 방법론적 구속성	김웅진	A
1999(33:3)	지식의 축적과 연구전통의 진보: 방법론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웅진	A
1999(33:4)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정당연합이론을 중심으로	진영재	B
2001(35:4)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 중심으로	김지희	B
2004(38:2)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함성득·임동욱· 곽승준	B
2005(39:3)	수(數)와 이야기	안재홍	A
2008(42:3)	유럽의회 내 정당응집성 측정에 대한 비교제도학적 연구: 공간모델을 적용한 대안적 지표 개발	한정훈	B
2009(43:1)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군사무기 이전의 사회연결망 분석	김형민	B
2009(43:5)	Psychologic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emma	S. Kim	B

\* A: 과학철학적·인식론적·지식사회학적 논의, B: 분석규준/방법에 관한 논의

\*\* 동일년도에 발표되고 본문에 언급된 저자의 상이한 논문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임.

출처: 「한국정치학회보」 14집(1980)-43집 5호(2010)의 출간년 및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검색창 <http://www.kpsa.or.kr/kpsr/search.htm>(검색일: 2010. 8. 9~11).



다음으로 구체적인 분석기준이나 방법을 다룬 논문으로서는 우선 이론구축작업에 있어서 회귀분석에 대한 과신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김웅진 1987a, 21:2), 인과관계의 추론척도와 경험적 실존 간의 불가피한 괴리(김웅진 1989, 23:2) 등 인과추론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험과학적 분석기준과 기법의 적용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들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법론적 논의를 주도해 온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는 최대상이체계분석안(Most Different Systems Design)과 최대유사체계분석안(Most Similar Systems Design)의 효용성 평가(김웅진 1986, 20:1), 혼합체계분석안(Mixed-systems Approach)의 이론적·방법론적 적실성과 한계(김지희 2001, 35:4) 등 정성적 인과추론전략의 적실성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cross-cases measurement validity)을 확보한 지표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락소-타게페라(Laakso & Taagepera)가 제시한 유효정당수 계측법의 개선방안(진영재 1999, 33:4)과, 공간모델(spatial model)에 따라 유럽의회 내 국가정당의 응집성을 추적하기 위한 대안적 측정지표(한정훈 2008, 42:3)가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다속성 효용이론(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스윙기법(Swing Weighting)을 적용한 한국대통령 평가방식의 설계(함성득·임동욱·곽승준 2004, 38:2), 군사무기 이전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방법(network analysis)의 국제정치학적 적실성과 효용성 진단(김형민 2009, 43:1), 연속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PD game: Prisoner's Dilemma game)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모형, 특히 심리적 학습과정을 투사한 학습모형(learning model)의 방법론적 평가(김성운 2009, 43:5) 역시 구체적인 분석기준과 방법에 관한 논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전반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경험과학적 입장을 확일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원석(1991)과 안재홍의 논문(2005)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유리ست의 폐쇄성을 명백히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분석방법/기법에 관한 제언과 평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학패권의 매체로 작동하는 방법론적 네트워크의 형성경로를 다양한 측면에서 추적한 김웅진의 논문(1990, 1993a, 1995, 1999)조차 경험과학적 유리ست의 강압성과 폐쇄성에 초점을 맞춘 '경험과학자의 경험과학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의 확일성은 방법론적 논의를 주도하여 온 학자군의 학문적 배경과 정향에 기인한 바 적지 않다고 본다. 즉, 이들은(본 논문의 필자를 포함하여) 경험과학적 시각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구미,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엄격한 방법론적 훈육에 집중적으



로 노출되었으며, 따라서 방법론적 분화와 세련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의 운용체계가 다루기 손쉬운 패키지(package)의 수준에 필적할 만큼 정형화된 경험과학의 유리시틱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날에 이르러 기본 전제와 규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경험과학방법론의 체계성과 치밀성이 강력한 주입식 교육의 효과와 어우러져 방법론적 논의를 “이미 형태가 갖추어진 딱딱한 상자”(the preformed and relatively inflexible box) (Kuhn 1970, 24)에 가두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인지습성의 고착상황 속에서 2000년대 중엽 방법론적 시각의 전면 개방을 지향한 미국 정치학계 일부 학자들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선언(2005)”은 비단 미국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학의 방법론적 정향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우리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 2) 국제정치논총

검색기간을 통해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은 9편에 불과하여 게재논문 총수(1,294편)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0.7%, <표 4> 참조). 비록 『국제정치논총』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학술지로서 국제관계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게재논문의 성격상 『한국정치학회보』와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부진한 축적성은 우리 방법론 연구의 취약한 위상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sup>8)</sup>

그러나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와 같이 상당 수준의 다양성이 노정되고 있다(<표 5> 참조). 즉, 1980년대에는 게재된 253편의 논문 가운데 “국제정치와 외교정책분석: 비교방법의 적용과 문제점”(신정현 1980, 20)이 유일한 방법론 논문이었음에 비해, 1990년대에 진입해서는 지극히 빈약한 절대 수(5편, 점유율 1.3%)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예컨대 창조적 “범법과학”(outlaw science)의 정립을 통한 경험과학방법론의 개방을 역설한 김웅진의 논문(1994b, 34:2), 국제정치의 역동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이전”의 제도적·기술적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론적 설계(홍성민 1998, 38:3), “Probit/Ordered Probit과 Event-Count 분석을 위한 방법—이해와 적용”(주미영·이상환 1995, 35:2) 등 과학철학적 담론, 새로운 유리시틱의

8) 현재 『국제정치논총』은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비교·지역정치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이론 및 사상, 한국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종합학술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표 4〉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 수 및 점유율: 1980~2009

기간(집:호)	게재논문 총수	방법론 논문 수	방법론 논문의 점유율(%)
1980~1989 (20~29:2)	253	1	0.4%
1990~1999 (30:1~39:3)	386	5	1.3%
2000~2009 (40:1~49:6)	655	3	0.5%
총 계	1,294	9	0.7%

제안과 계량통계기법의 소개·평가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2000년대 걸쳐 게재된 8편의 논문 가운데 절반(4편)이 비교정치연구전략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990년대에는 “Boole의 대수학적 연산방식을 통한 정성적 비교분석: 기본전제와 절차”(김웅진 1993b, 33:1)와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적 연구전략의 모색”(안승국 1998, 38:1) 등 두 편의 교차사례적 인과추론에 관한 논문이 소개되었고, 2000년대에 진입해서는 “선 비교사례연구 후 통계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통계분석모형의 오류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안재홍의 논문(2006, 46:2)과 교차사례연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노정되는 개념적 타당성(conceptual validity)-일반성(generality)-인과성(causality) 간의 삼각 딜레마(trilemma)를 고려할 때 가설검증을 통한 경쟁적 설명모형의 평가에 있어서는 통계분석전략이, 가설창출과 이론화에 있어서는 정성적 비교분석전략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권혁용의 영문논문(2006, 46:5)이 게재되었다. 이는 구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학에 있어서도 비교정치연구가 방법론적 논의의 중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학의 주도적 연구전통인 경험과학적 입장(실증주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유리스틱으로서 웬트(Alexander Wendt)의 양자역학적 시각을 논의한 양준희의 논문(2008, 48:4)은 2000년대에 게재된 유일한 인식론적 담론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다양화와 확장에도 불구하고 게재논문 수의 극심한 부족현상은 우리 방법론 연구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앞서 살펴 본 『한국정치학회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리스틱의 확일성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노정되고 있다. 즉, 국제

〈표 5〉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 1980~2006

간행년(집:호)	논문 제목	저자	영역*
1980(20)	국제정치와 외교정책분석: 비교방법의 적용과 문제점	신정현	B
1993(33:1) [1993b]**	Boole의 대수학적 연산방식을 통한 정성적 비교분석: 기본전제와 절차	김용진	B
1994(34:2) [1994b]**	문제풀이, 범법과학과 과학의 진보—경험과학 연구방법론의 개방경로	김용진	A
1995(35:2)	Probit/Ordered Probit과 Event-Count 분석을 위한 방법 —이해와 적용—	주미영 이상환	B
1998(38:1)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적 연구전략의 모색	안승국	B
1998(38:3)	국제정치문화연구 방법론 서설: 지식이전의 국제정치학 연구노트	홍성민	B
2006(46:2)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	안재홍	B
2006(46:5)	A Trilemma of Conceptual Validity, Generality, and Causality: Research Strategies in Comparative Analysis	Kwon, H.	B
2008(48:4)	양자물리학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메시지: 웬트의 양자역학과 양자의식가설 논의를 넘어	양준희	A

\* A: 과학철학적·인식론적·지식사회학적 논의, B: 분석규준/방법에 관한 논의

\*\* 동일년도에 발표되고 본문에 언급된 저자의 상이한 논문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임.

출처: 『국제정치논총』 20집(1980)~49집 6호(2010)의 출간본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 검색창 [http://www.kaisnet.or.kr/html/sub04\\_05.asp](http://www.kaisnet.or.kr/html/sub04_05.asp). (검색일: 2010. 8. 9~11).

정치 연구에 있어서 구성주의적 입장에 따른 “문화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홍성민의 논문(1998)과 “탈실증주의적 관점”의 효용성에 초점을 맞춘 양준희의 인식론적 연구(2008)를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은 모두 경험과학의 범주 내에서 새롭게 구축된 연구방법을 소개하거나(김용진 1993b; 주미영·이상환 1995) 기존 연구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안승국 1998; 안재홍 2006; 권혁용 2006). 또 단 한 편만이 발견되는 지식사회학적 담론(김용진 1994b) 역시 필자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한 논문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경험과학적 입장이 견지하고 있는 과학적 진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경험과학자의 자기성찰에 해당된다.

이처럼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방법론 논문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추적되는 유리스틱의 폐쇄성(경험과학적 획일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법론 연구자들의 학문적 정향과 배경에서 기인한 것인 동시에 우리 정치학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과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방 직후 “약한 과학”(weak science)으로 출발한 우리 정치학은 구미 정치학의 전면적 수용을 통해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강한 과학의 위상을 확보한 구미 정치학의 연구전통은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패러다임 범례(paradigmatic examples)로서 받아들여졌고, 우리 정치학 연구는 모든 약한 과학이 그러하듯 구미의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추종의 길(Kuhn 1970, 10-22)을 밟아나갔던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양승태(2000, 13)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 식민통치가 야기한 “전통이론의 무력화”와 그에 따른 학문적 공동(空洞)이 경제사회적 근대화 전략의 선택과정에서 채택된 ‘구미성은 곧 선진성’이라는 정치사회적 슬로건과 어우러져 우리 정치학 연구의 구미지향성을 확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정치학 연구의 학문적·사회적 정향이 약한 과학이 강한 과학으로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분석시각의 산만한 대립”(김용진 1992, 222)을 애당초 배제함으로써 왜곡된 약한 과학, 의탁을 통해 구축된 약한 과학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과학 이데올로기, 곧 과학적 규준의 보편성에 관한 신조(이른바 ‘보편과학’의 관념)가 구미 유리스틱의 적극적 수용을 더욱 추동한 것이다. 이로부터 방법론 연구의 미진성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구미 유리스틱의 습성적 수용과 ‘홀로 서기’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곧 인지습성이 야기한 미성숙이 노출된 결과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이지 습성적인 미성숙이 과연 어떤 양태를 지닌 성숙의 길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사회화적이지 정치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 정치학 연구가 다양한 분석시각의 창조적 대립을 통한 자아준거적 유리스틱의 구축과정으로 전개될 것인지 구미 연구전통의 충실한 수용이 가속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학계, 더 나아가 사회과학계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과학정치의 역동에 좌우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부진한 연구성과가 방법론 연구에 동원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회원명부에는 방법론을 제2전공으로 제시한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로 세련된 분석방법을 동원한 수많은 연구가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을 통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방법론 연구의 핵심적 문제가 놓여 있다고 판단된

다. 즉,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분석논리에 관한) 사색을 남에 손에 맡겨 놓는 무의식적 사색”(unconscious thinking) (Sartori 1970, 1046-1047)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결론에 다시 도달할 수밖에 없다.

## 2. 저서

다음으로 같은 기간에 《한국정치학회》에 소속된 정치학자들이 저술한 연구방법론 저서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나듯이 1980~2009년 사이에 출간된 방법론 저서들은 총 16종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까지 출간된 정치학 관련서적이 수백 종<sup>9)</sup>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정치·비교정치·국제정치 등 여타 분야에 크게 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2007)에서 제공한 정보와 비교해 볼 때 단 3종의 서적이 증가되었을 뿐이다(윤종빈 2004; 김웅진 2005, 2009).

내용의 측면에서는 16종 가운데 9종(김웅진·김지희 2000, 2005; 김웅진 외 2001; 노동일 1996; 안영섭 1996; 오명호 1995; 윤종빈 2004; 최한수 1993; 한배호 1988)이 입문서 내지는 교과서에 해당된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철학적 전제와 기준, 개념화와 인과추론(causal inferences)에 관련된 협약, 연구설계의 구조, 관측·측정방법과 계량통계적 자료 분석기법을 한 권의 책에서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구미식 표준 교과서(standard text)들이며, 존재론적·인식론적 측면에서도 획일적으로 경험과학적 입장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호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에 성격을 달리하는 저서로서는 비교정치연구의 방법론적 전략을 교차사례분석과 사례분석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적용절차를 소개한 후 분석단위의 비교가능성과 등가성 확보방식, 사례 간 확산의 문제(Galton's Problem)와 그 해결방식을 다룬 『비교사회연구방법론』(김웅진·김지희 2000, 중판), 일곱 명의 저자가 자신이 실제로 연구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 쓴 『정치학 조사방법: 재미있는 퍼즐풀기』(1999, 중판)를 들 수 있다.

9) 2010년 8월 11일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학”을 입력한 결과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786종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366종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에 1980년 이후 출간된 전문학술서적의 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후속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한 검색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6〉 연구방법론 저서 출간현황: 1980~2009

저자	제목	출판사 및 출판년도	성격
김 용 진	『현대정치학의 방법론적 위상』	학연사, 1987	연구서
	『(편) 방법,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한울, 1994	연구서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인간사랑, 1996	연구서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정치』	전예원, 2001 [2001a]*	연구서
	『과학해계모니의 정치적 영상』	청목출판사, 2005	연구서
	『과학 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열린 사회과학'의 모색』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연구서
김 용 진	『비교사회연구방법론: 비교정치·비교행정·지역 연구의 전략』	한울, 2000(중판)	교과서
김 지 희	『비교지역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	인간사랑, 2003	연구서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연구의 기준과 설계』	명지사, 2005(중판)	교과서
김 용 진 김 종 표 박 경 산 이 남 영 정 영 국 조 기 숙 최 진 옥	『정치학조사방법: 재미있는 퍼즐풀기』	명지사, 2001(중판)	교과서
노 동 일	『정치학방법론: 이론·통계·SPSS』	법문사, 1996	교과서
안 영 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	법문사, 1996	교과서
오 명 호	『현대정치학방법론』	박영사, 1995	교과서
윤 종 빈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명지대학교출판부, 2004	교과서
최 한 수	『정치학연구방법론』	대왕사, 1993	교과서
한 배 호	『정치학방법론』	법문사, 1988(중판)	교과서

\* 동일년도에 출간되고 본문에 언급된 저자의 상이한 저서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임.

출처: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검색창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찾기” 검색창 [http://www.nl.go.kr/search/wed\\_search/search/search/\\_brief.php?search\\_mode=0](http://www.nl.go.kr/search/wed_search/search/search/_brief.php?search_mode=0); 〈인터넷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index.laf> (검색일: 2010. 08. 11). 누락된 저서가 있을 수 있으며, 외국도서 번역서는 제외하였음.

전문연구서적으로는 김웅진의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정치』(2001a), 『과학 패권과 과학민주주의』(2009), 김웅진·김지희의 『비교지역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2003)을 포함하여 7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6종이 동일 저자(김웅진)에 의해 쓰인 것이며, 방법론적 연계망(methodological network)을 매개로 한 과학패권의 행사경로, 과학체계의 형성, 유지와 재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학정치의 역동을 방법론적 맥락에서 추적한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담론이기 때문에 저자와 내용에 있어서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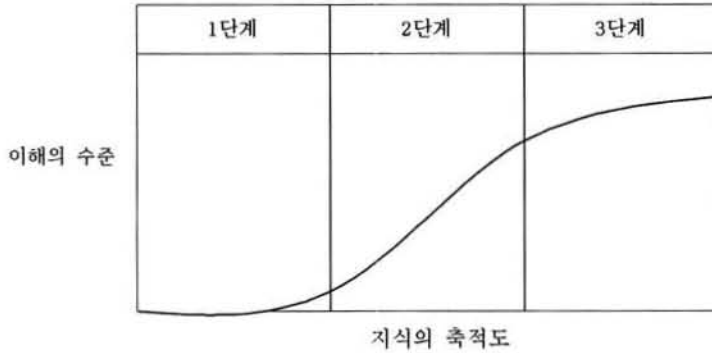
한편 《한국정치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학자들이 저술한 방법론 교과서들, 예컨대 김광웅의 『방법론강의: 기초·원리·응용』(1996)이나 강신택의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1996) 등이 수차 중판되어 정치학과(정치외교학과)의 방법론 강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호정의 『사회과학통계분석』(1993), 노화준의 『행정계량분석』(1990), 이원옥의 『조사연구방법론』(1999)처럼 계량통계분석의 기법적 운용절차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책들도 거의 대부분 행정학자들의 저서이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에 관한 한 행정학자들이 정치학자들에 비해 보다 활발한 저술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술현황으로 미루어 본 조사연구의 검색대상에서 제외된 『한국행정학보』에는 『한국정치학회보』 혹은 『국제정치논총』에 비해 보다 많은 방법론 관계논문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출간된 저서의 수를 단순 비교하여 행정학자들이 정치학자들에 비해 보다 큰 방법론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 영역에 속하는 정치학과 행정학을 구획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현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아울러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실용적 성격에 상응하여 경험적 자료의 처리방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의 행정학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조사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고시로 인해 방법론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정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저서(특히 수험대비 교과서)가 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II. 결론: 방법론의 개방과 지식의 창조적 재구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진행된 우리 정치학방법론 연구는 축적성에 있어서





〈그림 1〉 지식의 축적에 따른 이해의 수준

극히 미진할 뿐 아니라 영역과 정향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은 방법론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학 연구 전반에 걸쳐 분석시각의 폐쇄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방법론의 폐쇄성은 유리스틱의 폐쇄성, 더 나아가 연구프로그램 자체의 폐쇄성을 초래하며, 이는 특정한 연구전통의 강화과정에서 표출되는 전형적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식의 축적과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의 상관성을 논의한 윈터(Jenny Winter)에 따르면 연구프로그램의 공고화 과정은 3단계, 곧 ① 새로운 유리스틱의 제시 단계, ② 수용된 유리스틱에 따른 연구의 적극적 진행 단계, ③ 연구정향과 영역의 폐쇄 단계로 구분된다(Winter 1995, 470-473). 방법론 연구는 주로 1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3단계에서는 유리스틱(방법론)의 공고화에 따라 연구문제의 답습성이 노정됨으로써 비록 지식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은 거의 증대되지 않는다(〈그림 1〉 참조)

우리 정치학 연구의 공고화·안정화 과정이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단계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리스틱이 자생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학문적·학문외적 상황으로 인해 구미로부터 차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열한 방법론적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극소수의 논쟁조차 구미에서 진행되는 논쟁의 반복재현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컨대 1990년 이후 출간된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 방법론적 논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연구로서는 “정치과학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한계성”이라는 맥락에서 구미에서 전개된 “실증주의 정치학, 해석학적 정치학 및 비판적 정치학” 간의 대립을 소개한 김종술의 논문(1990, 24:특)과 “실증주의적, 행태주의적, 과학적 정치이론화 작업”에 대한 구미 정치철학계의 비판을 요약한 백승현의 논

문(1990, 24:특) 등 단 두 편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은 방법론 연구자 또는 특정한 방법을 연구과정에 동원하고 있는 과학자(political scientist)가 아닌 정치철학·사상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과학적 정치학 연구가 노정하고 있는 방법론적 논의의 “기피와 방관”(김웅진 1997)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논쟁의 단순한 요약·소개를 벗어나 현대 정치학의 주류 유리스틱(경험과학적 유리스틱)을 명쾌하게 비판한 연구로서는 단연 김홍우의 저서(1999, 13-101)를 꼽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상학적 입장이라는 구미 유리스틱에 기초한 정치철학적 담론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치학 연구의 전반적 축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되었으나 방법론 연구는 오히려 축소됨으로써 축적성과가 새로운 통찰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정치학 연구의 현황은 유리스틱과 방법론의 극심한 구미의존성에 따른 자아준거성의 상실로 인해(김영명 2006; 강정인 2004) 마치 뉴욕 브로드웨이(Broadway) 뮤지컬을 우리 배우와 우리말로 바꾸어 공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뮤지컬은 브로드웨이의 변종 내지는 복사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가피한 차용으로 인한 것이든 적실성에 대한 억압적 훈육의 결과이든 과학패권의 동원에 의한 것이든, 유리스틱에 대한 맹목적 신조의 형성과 그에 따른 방법론적 시각의 폐쇄는 과학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창조성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파이어라벤드(Paul Feyerabend)에 따르면

… 견해의 만장일치는 엄격한 교회, 공포에 질린 사람들, 탐욕스러운 신화의 희생자들, 또는 폭군에게 굴복하는 나약한 추종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견해의 다양성은 객관적 지식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격려하는 방법이야말로 인도주의적 사고방식과 어울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eyerabend 1993, 31-32).

이러한 맥락에서 견지하고 있는 유리스틱과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과 의식적 도전이 요구된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Kuhn 1977, 235)이 의도적으로 격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창조적 회의만이 과학적 교조를 타파할 수 있다. 정치학은 정치적 세계의 지속적인 재구성 양태를 탐색하는데 요구되는 분석기준과 시각의 다양화를 지향해야 한다. “동일한 세계 […]는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세계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Hanson 1995, 63) 방법을 모색하는 것, 곧 정치적 세계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틀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학의 새로운 목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문제의 전면적 개방을 시도해야 한다. 과학행위가 본질적으로 “수수께끼(연구문제) 풀이(puzzle-solving activities)” (Kuhn 1970, 35-42)라면 “문제풀이 기제”, 곧 유리스틱과 방법론의 개방은 바로 풀어야 할 문제의 개방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 유리스틱의 수용은 단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구문제의 수용을 수반해 왔다. 즉, 지금까지 우리 정치학 연구가 상정한 연구문제들은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 구미 유리스틱으로 풀기에 적합한 문제, 구미 유리스틱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 더 나아가 구미 정치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복제하거나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들이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치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비단 정치학계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정치사회적 역동이 구미의 정치사회적 역동에 동화되어 간다면 구미식 연구문제의 학문적·실천적 적실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연구문제의 상정과 문제풀이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우리의 정치사회적 역동은 고유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가? 따라서 구미 유리스틱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을 수 없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유리스틱과 연구문제의 재구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방법론은 애당초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제안되나, 풀이의 지속적 성공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수용될 경우 역으로 연구문제의 선정을 제어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문제가 연구방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한 과학은 유리스틱의 핵심전제와 규준(hard core)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환(protective belt), 곧 보조가설(auxiliary hypotheses)의 집적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진보적 연구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me)의 위상을 획득하려 시도한다(Lakatos 1986, 4-7).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구문제, 주어진 유리스틱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반복 답습을 통한 ‘제어된 축적’의 허상일 뿐이다. 과학철학적·지식사회학적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정치학 연구, 특히 경험과학 연구는 강한 과학의 모습에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1〉에서 3단계). 즉, 경험과학적 유리스틱에 입각한 보조가설들이 끊임없이 생산됨으로써 방대한 량의 연구결과가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등 다양한 학술매체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경험과학 연구는 유리스틱의 강요와 연구문제의 제어에 입각한 진보의 허상을 이미 확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법론 연구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구미 연구전통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풀 필요

가 없다고 여기지는 '쓸데없는' 문제, 그러나 우리 정치사회적 정황과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익숙한 문제만을 반복적으로 푼다면 문제풀이 방식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를 의도적으로 탐색하여 그 학문적·실천적 적실성에 대한 과학계 내외의 지지를 동원할 때 비로소 방법론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강신태. 1996.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김승흠. 1980.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63년과 1978년." 『한국정치학회보』 14집, 89-103.
- 김광웅. 1987. "한국정치학에서 『과학적 연구』의 의미: 과학철학에 대한 반성과 제언."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71-94.
- \_\_\_\_\_. 1996. 『방법론상의 기초·원리·응용』. 서울: 크라운.
- 김영명. 2006.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 김웅진. 1986. "비교분석기법의 재조명: 공간적 통제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집 1호, 171-180.
- \_\_\_\_\_. 1987a. "회귀분석 '신드롬': 한국정치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법적 진단."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203-217.
- \_\_\_\_\_. 1987b. 『현대정치학의 방법론적 위상』. 서울: 학연사.
- \_\_\_\_\_. 1989. "모형화 작업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론척도: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재성찰." 『한국정치학회보』 23집 2호, 385-399.
- \_\_\_\_\_. 1990. "지식생산경로의 폐쇄성: 정치현실과 정치학적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24집 특별호, 311-324.
- \_\_\_\_\_. 1993a. "방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 연구방법론의 성화와 지식의 화석화." 『한국정치학회보』 27집 2호[하], 165-179.
- \_\_\_\_\_. 1993b. "Boole의 대수학적 연산방식을 통한 정성적 비교분석: 기본전제와 절차." 『국제

- 정치논총」33집 1호, 235-249.
- \_\_\_\_\_. 1994a. "한국정치학에 있어서 연구방법론: 저술활동, 연구인력 및 교육현황에 대한 요약보고와 제언."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서울, 9월.
- \_\_\_\_\_. 1994b. "문제풀이, 법법과학과 과학의 진보—경험과학 연구방법론의 개방 경로." 『국제정치논총』34집 2호, 535-548.
- \_\_\_\_\_. (편). 1994c. 『방법,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서울: 한울.
- \_\_\_\_\_. 1995. "과학적 발견의 정치사회적 정당화: 적실성의 족쇄와 방법론적 구속성." 『한국정치학회보』29집 3호, 295-310.
- \_\_\_\_\_. 1996.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서울: 인간사랑.
- \_\_\_\_\_. 1997. "한국정치학의 방법론적 위상—차용, 기피와 방관의 신화."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학—현황과 전망』, 42-58. 서울: 법문사.
- \_\_\_\_\_. 1999. "지식의 축적과 연구전통의 진보: 방법론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3집 3호, 9-22.
- \_\_\_\_\_. 2001a.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정치』. 서울: 전예원.
- \_\_\_\_\_. 2001b. "정체된 긴장: 정치학방법론 연구의 전개과정, 1980~1999."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편. 『한국정치학 50년, 정치사상과 최근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247-266. 서울: 한울.
- \_\_\_\_\_. 2002. "과학적 패권과 연구방법론: '우리 방법론'의 모색." 『21세기 정치학회보』12집 1호, 217-229.
- \_\_\_\_\_. 2005. 『과학체계모니의 정치적 영상』. 서울: 청목출판사.
- \_\_\_\_\_. 2007. "한국 정치학계의 방법론 연구성과, 1980~2006: 제5차 현황보고." 『사회과학논집』25권 1호, 1-14.
- \_\_\_\_\_. 2009. 『과학 패권과 과학민주주의, '열린 사회과학'의 모색』.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웅진·김지희. 2000. 『비교사회연구방법론: 비교정치·비교행정·지역연구의 전략』. 서울: 한울.
- \_\_\_\_\_. 2003. 『비교지역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 고양시: 인간사랑.
- \_\_\_\_\_. 2005. 『정치학 연구방법론: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 김웅진 외. 2001. 『정치학조사방법: 재미있는 퍼즐풀기』. 서울: 명지사.
- 김지희. 2001. "비교정치연구에 있어서 혼합체계 분석안의 방법론적 적실성: 인과추론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5집 4호, 265-275.
- 김형민. 2009.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군사무기 이전의 사회 연결망 분석." 『한국정치학회보』43집 1호, 301-321.
- 김호정. 1993.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노동일. 1996. 『정치학방법론: 이론·통계·SPSS』, 서울: 법문사.
- 노화준. 1990. 『행정계량분석』, 서울: 법문사.
- 신명순. 1982. "한국정치에 있어서 정치시위의 효율성." 『한국정치학회보』 16집, 25-44.
- 신정현. 1980. "국제정치와 외교정책분석: 비교방법의 적용과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20집, 15-26.
- 안승국. 1998.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적 연구전략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38집 1호, 3-16.
- 안영섭. 1996. 『사회과학방법론총설』, 서울: 법문사.
- 안재홍. 2005. "수(數)와 이야기."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105-127.
- \_\_\_\_\_. 2006.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46집 2호, 31-55.
- 안청시. 1977.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11집, 218-238.
- 양승태. 1999. "한국정치이론사 서설: 한국정치이론사의 대상과 시대구분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시론적 개관."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총람: 정치학·행정학·사회학 편』 54집, 3-9.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 양준희. 2008. "양자물리학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메시지: 웬트의 양자역학과 양자의식가설 논의를 넘어." 『국제정치논총』 48집 4호, 89-115.
- 오명호. 1996. 『현대정치학방법론』, 서울: 박영사.
- 윤종빈. 2004.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 이갑윤. 1987. "정치학의 과학화와 통계적 방법."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191-202.
- 이남영. 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의식 변화를 중심으로(1974년과 1984년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5집, 77-95.
- 이용선. 1978. "사회·경제자원의 분배, 정치참여 및 정치계층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20집, 291-307.
- 이원욱. 1999. 『조사연구방법론』, 서울·대구: 형설출판사.
- 장원석. 1991. "해석학 논쟁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제문제." 『한국정치학회보』 25집 1호, 435-465.
- 조종빈. 1986. "대통령의 영향력과 지지집단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0집 1호, 249-272.
- 주미영·이상환. 1995. "Probit/Ordered Probit과 Event-Count 분석을 위한 방법—이해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35집 2호, 101-120.
- 진영재. 1999.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정당 연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327-341.
- 최한수. 1993. 『정치학연구방법론』, 서울: 대왕사.
- 한배호. 1988. 『정치학방법론』, 서울: 법문사.

- 한정훈. 2008. "유럽의회 내 정당응집성 측정에 관한 비교제도학적 연구: 공간모형을 적용한 대안적 지표 개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239-265.
- 함성득·임동욱·곽승준. 2004.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263-284.
- 홍성민. 1998. "국제정치문화연구 방법론 서설: 지식이전의 국제정치학 연구노트." 『국제정치논총』 38집 3호, 25-42.
- 한국국제정치학회. 1980~2006. 『국제정치논총』 20집~49집 6호.
- 한국정치학회. 1980~2006. 『한국정치학회보』 14~43집 5호.
- Brown, J. 1988. "The Experimenters' Social Circl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18. No. 1, 101-106.
- Feyerabend, Paul. 1993. *Against Method*. London and New York: Verso.
- Fuller, Steve. 2000. *The Governance of Science*. Buckingham an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Hanson, Norwood Russell 저. 송진웅·조갑경 역. 1995. 『과학적 발견의 패턴, 과학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탐구』. 서울: 민음사.
- Kaplan, Abraham. 1998. *The Conduct of Inqui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Kim, Sung-youn. 2009. "Psychologic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in the Prisoner's Dilemm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3. No. 5, 53-74.
- Kwon, Hyeok Yong. 2006. "A Trilemma of Conceptual Validity, Generality, and Causality: Research Strategies in Comparative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6. No. 5, 115-132.
- Kuhn, Thomas S. 1977. *The Essential Tension, 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atos, Imre. 1986.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golis, Howard. 1993. *Paradigms and Barriers, How Habits of Mind Govern Scientific Belief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nroe, Kristen R., ed. 2005. *Perestroika: The Raucous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Popper, Karl R. 1985.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In David Miller, ed. *Popper Selections*, 171-18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Knowledge and the Body-Mind Problem: In Defence of Intera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rtori, Giovanni.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 4, 1033-1053.
- Winter, Jenny. 1995. "Creative Research: Description of Some Signposts to Unknown Area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25. No. 4, 468-478.

〈인터넷 자료〉

- 국회도서관. 2010. "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http://www.nanet.go.kr/03_dlib/01_datasearch/datasearch.jsp)  
(검색일: 2010. 8. 11).
- 국립중앙도서관. 2010. "자료찾기." 2010. [http://www.nl.go.kr/search/wed\\_search/search/search/\\_brief.php?search\\_mode=0](http://www.nl.go.kr/search/wed_search/search/search/_brief.php?search_mode=0) (검색일: 2010. 8. 11).
- 인터넷 교보문고. 2010. <http://www.kyobobook.co.kr/index.laf> (검색일: 2010. 8. 11).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국제정치논총." [http://www.kaisnet.or.kr/html/sub04\\_05.asp](http://www.kaisnet.or.kr/html/sub04_05.asp) (검색일: 2010. 8. 9~11).
-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http://www.kpsa.or.kr/kpsr/search.htm> (검색일: 2010. 8. 9~11).

ABSTRACT

---

## A Critical Review of Methodological Studies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1980-2009: Diagnosis and Prescriptions

Ungji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bibliographic review of the articles published both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the books and monographs published in the period of 1980-2009, reveals that the methodological studies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ve exposed negligible degree of accumulation and petrified research orientation.

The present condition is an evident prognosis of the sanctification of heuristics and analytic canons of well-established research programme. Unconditional surrender and submission to the methodological creed of “strong science” would produce the “Myth of Methodology”, thereby creating epistemic huddles to scientific progress. Critical introspection of the current heuristics is urgently required to promote free and diverse methodological campaigns, which would lead to the construction of the ‘open scientific society’ for creative political research.

**Keywords:** heuristic, Korean political science, methodology, research programme, research tradition